



군종주보

2017년 6월 18일(제828호) 그리스도의 상재 성혈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Copain = 친구

프랑스어 ‘Copain’ 은 친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풀이해보면 ‘co’ + ‘pain’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co’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pain’ 이란 단어는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풀어서 이야기 하면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이가 바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그리고 이날 들려주시는 복음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나누어 먹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구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 구원자이기에 우려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빵을 먹고 나누는 친근하고도 정겨운 친구가 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누는 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자 하는 빵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 자기 자신이십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의 저 물음에 요한 복음의 다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있는 빵이고, 그 빵을 우리와 나누시겠다는 말씀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랑의 결심, 결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매 미사 시간 성체와 성혈을 모시며 보고 느끼고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친구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너무도 가까이 있어서, 매 미사 시간마다 모시는 성체와 성혈이어서 쉽게 지나쳐버린 그분의 사랑을 오늘 미사 시간, 특별히 성찬의 전례와 성체와 성혈을 모시며 기억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민(T. 이퀴나스) 신부
예성대(공군 제16집비단) 생당 주임

제 1 특 시 신명 8,2-3.14ㄴ-16ㄱ

회 답 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제 2 특 시 1코린 10,16-17

부 속 기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요한 6,51-58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진리를 살다

사람들의 대화는 실제로 서로 경청하면 할수록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더욱 진중하게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만큼 더 생동적이고 더 효과적입니다.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은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대답할 때 첫 번 사람은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이와 같이 대화는 서로 연결되어 갑니다. 실제로 대화에 있어 서로 경청을 잘못하면 오해와 불신이 야기되고 심지어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화의 상대방에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과 말과 느낌을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미사 전례도 말을 건네고 응답하는 교류 안에서 거행됩니다. 하느님은 당신 사랑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하셨고 또 거듭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미사 전례 안에서 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들은 경청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응답을 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봉독과 화답송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신경은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발췌한 독서들과 그 해설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앙고백은 허공을 치는

신앙고백

빈말뿐입니다.

신앙고백이 처음부터 항상 미사의 구성 요소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주일과 대축일에만 말씀의 선포 후에 합니다. 사실 신앙고백은 미사 안에서 손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 자리는 다른 곳, 즉 세례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긴 신앙고백은 동방 교회에서 유래하며 그 핵심 부분은 예루살렘의 초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세례 예식 때 말하는 신앙고백에까지 소급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짧은 사도신경은 서방교회에서 생성, 발전되었고 로마의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세례 예식에서 유래합니다.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오(339-397) 성인은 파스카 직전 주일에, 세례성사를 받기 위해 준비를 갖춘 세례 후보자들에게 다음의 말로 신앙고백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든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거룩한 사도들이 함께 모여 그 신앙의 핵심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신앙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신앙고백은 그 두 가지의 양식으로 수세기를 통하여 동방과 서방 교회의 영세한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오늘의 우리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긴 신앙고백은 일치의 염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 양식은 그리스도교가 신앙의 분쟁과 분열로 동요되던 시대에 형성되었으며 신앙 역사의 발자취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정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평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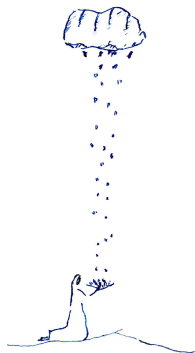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빵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 음 록 상



상화이야기

성베드로 광장



베르니니(1598-1680)
1556-67년 작,
이탈리아 로마

한 번에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 광장은, 건물이 지어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 및 신자들로 붐비는 곳이다.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것이 16세기 르네상스시기에 지어진 성베드로 대성당이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전형적인 십자가 모습을 본 뜬 구조물이다. 베드로 광장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사람이 두 팔을 벌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종교를 수용하고자 하는 가톨릭의 정신을 상징한다.

두 팔 모양의 광장의 중앙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와 두 개의 분수가 있고, 광장을 감싸고 있는 팔 부분에는 4열 기둥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 이 건축물 위에는 성인들이 조각품이 놓여 있다.

이 기둥들은 소박하고 장식이 없는 투스카니 양식 기둥들로, 광장을 든든히 감싸고 있으며, 이렇게 단순한 기둥이 광장을 더욱 확장하여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 공간은 모든 종교와 인종을 감싸 안는 공간인 동시에, 세속적인 공간을 뒤로하고, 성당으로 들어가기 전, 양 세계를 연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 공간은 성스런 세계를 보호하는 닫힌 공간 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초대하는 열린 공간이기도 한 이중적 성격을 담고 있다.



김은혜(벨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그리스도의 생애 상설 대축일: 회령대 전병규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6월 18일(주일) 11:00
- 국장단 워크샵
 때: 6월 20일(화)-21일(수), 태안
- 가톨릭의료협회 원목자 총회 및 세미나
 때: 6월 22일(목)-23일(금), 안양 아론의 집

◆ 군중교구 '잇숨 상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목요일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김범휴 빈첸시오 010-4521-8194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